

고령사회를 대비한 정보격차해소 정책방안 고찰

손연기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요 약

본 연구는 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고령층 정보격차해소 방안 관련 연구이다. 먼저 정보격차에 관한 이론적 쟁점을 살펴본 후 해외 주요국들의 고령층 정보격차해소 현황을 소개하고, 고령사회 도래에 따라 고령층의 정보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고령층 정보격차해소 방안을 고찰하고 있다.

향후 빠르게 진행될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고령층 정보격차해소 정책방안으로서 정보격차 진화의 단계별로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으로 분류하여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제1유형에서는 정보의 접근성, 제2유형에서는 정보의 활용성, 그리고 제3유형에서는 정보의 수용성을 기준으로 정보격차가 분화된다.

이 유형들은 그 일부가 정책방안을 구상함에 있어 중복 고려될 수 있다. 제1유형에서는 보편적 접근 및 서비스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정보기기에 대한 균등한 접근기회 보장 및 인적 네트워크 강화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제2유형과 제3유형에서는 고령층의 사회참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활용 능력 및 세대 간 의사소통 능력의 증진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겠다.

이와 같은 대응방안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으로 접근해 나갈 필요가 있다.

1. 서 론

우리사회는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인구 고령화 속도를 보여주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시점에 와 있다. 특히, 인터넷 이용이 확산되면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급물살을 타고 과급된 정보문화는 고령층의 세대적 단절감을 일으키기도 한다. 정보화라는 시대적 흐름을 거스를 수 없는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에서 세대 갈등의 심화는 정보격차 등으로 인한 사회 양극화 현상과 맞물려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란 점을 알 수 있다. 이런 사회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 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도출은 정보화의 성숙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김은정, 2007).

저출산 및 고령화의 당면 사회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1970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0-14세 저연령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되어 2030년경 0-14세 인구는 11.4%, 65세 이상 인구는 24.3%로 추정되며, 2050년이 되면 0-14세 인구가 불과 8.99%인데 반하여,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38.2%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사회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통계청, 2006).

따라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최근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국가적 주요과제로 급부상하였다. 특히, 정보사회 발전과정에서 고령층의 정보사회 참여는 매우 저조한 수준을 보임으로써 2002년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한국사회에서 고령층의 정보격차해소는 중요한 정책과제로 다루어

질 필요가 있다(김은정, 2007).

정보통신기술은 고령층의 정보격차 해소라는 관점에서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독립적 생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활동적인 노인의 사회참여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적극적 사회참여를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줄 것이다. 고령사회에서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의 기여도를 고려해 볼 때 고령층 정보격차해소는 국가적인 중요한 과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외 주요국들의 고령층 정보격차해소 현황을 소개하는 한편, 고령사회 도래에 따라 고령층의 정보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고령층 정보격차해소 방안을 고찰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정보격차에 관한 논의에 관한 기본입장과 아울러 고령사회에서 정보격차해소 필요성을 검토하고, 주요 선진국과 국내에서 그간 추진되었던 고령층 정보격차해소 활동 현황 및 정보격차 실태를 개관한다. 다음으로 정보격차의 단계별 유형을 고찰함으로써 고령층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접근방안을 구성한 후 이를 기준으로 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고령사회와 정보격차

1. 정보격차에 관한 이론적 쟁점

정보사회는 기술발전에 대한 이분화 된 이론과 마찬가지로 그 시작과 함께 역사적으로 낙관론과 비관론의 대립이 있어왔는데, 이들 중 어느 입장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정보격차에 대한 시각도 달라진다.

정보화의 진전과 함께 정보격차의 문제도 다른 사회문제들과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낙관론의 입장에서는 신기술 도입의 초창기에는 기술이 기존의 불평등 구조와 결합하여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키지만, 기술의 지속적 발전으로 그 심각성은 약해지거나 궁극적으

로 해소될 것으로 본다.

대표적 낙관론자인 벤자민 콤페인(Compaine, 1988)은 전화나 TV 등의 미디어 확산과정에 대한 역사적 경험사례를 통하여 정보 불평등이나 정보격차를 새로운 기술도입 초창기에 발생하는 과도기적 문제로 인식한다.

반면 정보격차는 이에 대한 마땅한 해소책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라는 입장을 취하는 비관론에서는 정보격차가 정보나 정보기기의 소유 및 사용이 기존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가 발동하지 않을 때 불가피하게 발생하며, 이에 따라 불평등의 재생산 구조 또한 개선되기 힘들 것이라고 인식한다.

대표적 비관론자인 허버트 실러(Schiller, 1996)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정보의 풍요를 낳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로 부터 혜택을 누리는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이 정보부자(information rich)와 정보빈자(information poor)로 분화되어 이들 집단 간 격차가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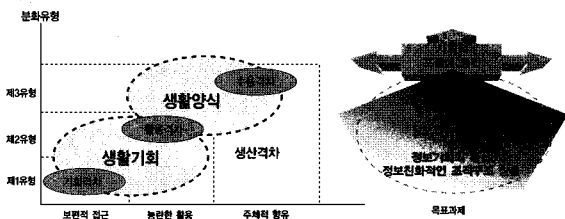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도 정보격차의 문제는 국가정보화 촉진과 함께 학술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책적 차원에서 크게 부각되어 왔다.

정보화 산업의 빠른 확장과 사회문화적 영역에서의 정보화 진행에 따라 정보격차의 양상이 양적, 질적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종합하여 국내외 연구자들은 주로 계층, 성, 세대, 지역(국제 및 국내 포함)이라는 '4대 변인'을 주요 정보격차 요인으로 꼽고 있다(박형준, 1996; 김문조·김종길, 2002; Schiller, 1996; World Bank, 2001). 특히 김문조·김종길(2002)은 정보격차의 논의에서 그간 간과되어 온 다차원성과 복합성을 보다 분석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유형화하는데 기여하였다. 이들 학자는 정보격차의 유형을 정보의 접근성, 정보의 활용성, 정보의 수용성으로 분류하여 이에 적합한 정책적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정보격차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정보의 접근성은 새로운 정보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 정보 활용은 정보기술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획득·가공·처리할 수 있는 기술사회적 조건, 그리고 정보 수용은 정보를 활용하여 삶을 풍요롭게 하는 지적, 정서적

01. 실러(Schiller)와 같은 비관주의적 입장의 출발과 관련하여 주시해야 하는 점은 이러한 반(anti)기술유포피자적 전망이 정보 불평등 자체가 '자본주의 비판'이라는 비판사회학적 논제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생활상과 관련이 깊다. 이들은 또한 막스 베버(Weber)에 의하여 최초로 이루어진 ‘생활기회’와 ‘생활양식’의 구분을 정보격차의 유형들에 적용하였는데”, 정보접근과 정보활용의 일부는 ‘생활기회(life-chance)’의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반면 정보활용의 또 다른 일부와 정보수용은 ‘생활양식(life-style)’의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각 사회에 존재하는 개인, 조직 또는 사회의 정보화를 가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김문조·김종길, 2002). 이러한 접근에 따라 이들은 정보격차의 세 유형 및 유형별 특징을 아래 (그림 1)과 같이 도식화하였다.



※ 출처 : 김문조·김종길(2002)

(그림 1) 정보격차의 세 가지 유형 및 유형별 목표과제

(그림 1)에서 정보기회의 확산, 정보접속의 강화, 정보가치의 창출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통한 정보격차해소의 최종 지향점으로 제시된 ‘사회적 포괄성(social inclusion)’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사회 참여를 담보함으로써 보다 성숙된 정보사회 실현을 추구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다.

정보격차의 유형이 제3유형인 정보수용의 격차에 가까울수록 사회문화적 수준도 높아진다.

즉, 정보문화의 수준은 결국 한 사회가 정보격차의 어느 단계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이러한 정보격차의 요인으로서 본 논문에서 관심을 가지는 ‘세대’라는 변수는 고령사회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그 중요성이 무척 크다고 하겠다. 고령층의 정보격차 수준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완화되었는지는 거스를 수 없는 사회 트렌드로서 정보화의 핵심논제가 된다.

2. 고령화 현상과 정보격차

1) 고령화 현상과 예측

고령화는 한 국가의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는 현상을 의미한다. 유럽연합(UN)에서는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노인이 전체 인구의 7%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를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노인이 전체 인구의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aged society)’,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사회는 ‘초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로 분류하고 있다.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국내 전체인구에 대한 노인 인구의 비율은 이미 2000년에 7%를 넘어섰으며, 2018년 14.8%, 2026년 20.8%로 급속히 증가하여 지금으로부터 불과 20년 뒤인 2026년경이 되면 인구 5명당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이 되는 초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이미 지난 2006년에 세계 최초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으며, 독일은 2009년, 미국은 2036년, 프랑스는 2018년경 초고령 사회를 맞이하게 된다. 특히, 우리사회는 세계적으로 전례 없이 빠른 인구 고령화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의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진입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18년,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불과 8년이다.

〈표 1〉 주요 국가의 고령화 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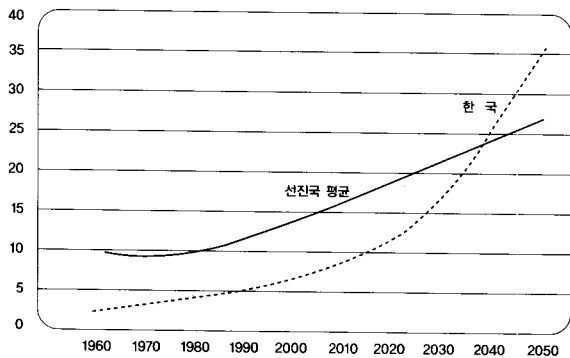
국가	도달 연도			소요 기간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
한 국	2000	2018	2026	18년	8년
일 본	1970	1994	2006	24년	12년
독 일	1932	1972	2009	40년	37년
미 국	1942	2015	2036	73년	21년
프랑스	1864	1979	2018	45년	39년

※ 출처 : 보건복지부(2007), 「2007 노인보건의복지사업 안내」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서는 2050년 국제사회의 고령화를 예측하면서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 6개 선진국과 비교하면서 한국이 가장 가파르게 고령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아래 (그림 2)는 이들 선진국의 평균 고령화 속도에 비해 급속하게 진행되는 한국

02_ 베버(Weber)는 경제 및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되는 조건에 따라 계급과 지위가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에 따르면 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한 생활기회(life-chance)의 불균등한 분배로 인해 계급이 발생하는 한편,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사람들의 행태에 따라 나타나는 생활양식(life-style)의 차이에서 지위집단이 생겨난다. 베버가 제시한 이 두가지 개념은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적 현상을 분석하는데 종종 인용된다. 김문조·김종길(2002) 또한 정보사회의 불가피한 현상으로서 정보격차의 유형분류를 설명하기 위하여 이 두 가지 개념을 적용하였다.

의 고령화 추세를 나타낸다.



※ 출처 : 미국국제전략문제연구소(Center for Strategic&International Studies)(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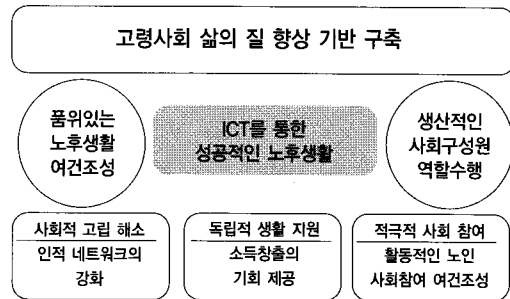
(그림 2) 한국과 기타 선진국 간의 고령화 추세 비교

2) 고령층 정보격차해소의 중요성

인터넷 이용이 확산되면서 기존 세대를 중심으로 발전해 온 기존의 문화와는 다른 형태로서 젊은 세대와 사이버 공간을 중심으로 '정보문화'라는 새로운 문화가 창출되었다. 이 정보문화는 사고방식, 여가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의 '아날로그 세대'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컴퓨터와 인터넷 등 '디지털'에 익숙한 세대와 그렇지 못한 세대 간의 문화적 단절과 이질감을 심화시키게 되었다. 결국, 이들 '아날로그 세대'와 '디지털 세대' 간의 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하고 세대 간 사회통합을 기하기 위하여 정보격차 해소는 결정적인 사회 정책적 과제로 대두되었다. 특히, 최근 가파른 고령화 추세는 정보문화의 영역에서 점차 배제되어 온 고령층의 사회통합을 필수적인 해결과제로 인식하게 만드는데 충분한 이유를 제공한다.

따라서, 고령층의 정보격차해소라는 관점에서 정보통신기술은 고령층의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시킴으로써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소득창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독립적 생활을 지원하며, 활동적인 노인의 사회참여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적극적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ICT의 역할은 품위 있는 노후생활 여건을 조성하고, 고령층이 생산적인 사회구성원의 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를 앞당길 것이다. 결국 고령층 정보격차해소라는

과제는 고령사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다.



(그림 3) 고령층을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역할

III. 고령층 정보격차 실태 및 대응 현황

1. 국내 현황

1) 고령층 정보격차 현황

한국인터넷진흥원(NIDA)의 한국 정보화에 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2006년 12월 말 기준으로 한국의 국민 인터넷 이용률은 74.8%(3천412만 명)이며, 고령층의 인터넷 이용률은 60세 이상을 기준으로 2006년 말 16.5%(1백9만 명)로 나타났다. 2001년 3.3%에서 2004년에 이르러서 10%를 넘어서게 되었다.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 고령층의 인터넷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다른 계층과 비교하였을 때 정보격차는 여전히 크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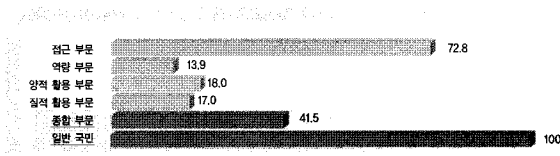
〈표 2〉 한국의 고령층 인터넷 이용률 변화 (2001-2006)

연 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인터넷 이용률(%)	3.3	2.3	5.2	10.1	11.9	16.5

※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2006), 「2006 하반기 정보화 실태조사」

정보격차해소 전문기관인 한국정보문화진흥원(KADO)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정보격차 지수 및 실태조사 결과, 접근 부문, 역량 부문, 양적 활용 부문, 질적 활용 부문별 일반 국민 정보화 수준 대비 60세 이상 고령층의 정보화 수준을

비교한 결과 접근 부문은 일반국민의 72.8% 수준, 역량 부문은 일반국민의 13.9% 수준, 양적 활용 부문은 일반국민의 18% 수준, 그리고 질적 활용 부문은 일반국민의 17%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각 부문들을 종합한 고령층의 종합 정보화 수준은 일반 국민 수준의 100%로 보았을 때, 일반 국민의 정보화 수준 대비 41.5%로 나타났다.



(그림 4) 고령층 정보격차 현황

※ 출처 :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6) 내부자료

2) 고령층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대응 현황

2000년부터 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1천만 명 정보화교육 계획' 이 수립된 이후 정책적으로 고령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정보화 교육 지원, 고령층의 정보화에 대한 인식 제고 활동, 그리고 고령층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정책 기반 조성 등의 노력을 전개해 왔다. 먼저,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과 관련하여, 2000년부터 전국의 모든 지역(읍, 면, 동)에 정보접근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지원함으로써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을 도모해왔다. 또한, 고령층을 포함하여 저소득 계층, 농어민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중고PC 보급을 지원하고, 이러한 정보접근센터 구축 및 중고PC 지원 활동은 해외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고령층을 위한 온라인 콘텐츠 및 정보화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고령층이 정보사회에 통합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왔다.

두 번째로 고령층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1차 과제로서 정보화 환경 마련을 위한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며, 아울러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여 정보이용 능력을 키우기 위한 정보화 교육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정책적으로 고령층의 정보이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고령층 정보화 교육기관' 을 지정하여 고령층을 위한 정보화 교육을 지원해왔다. 그 결과 지난 2006년까지 전국의 고령층 인구 약 3만9천 명이 정보화교육을 지원받았다. 또한, 고령층의 정보화 교육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표 3) 고령층을 위한 온라인 콘텐츠 및 교육과정 개발 현황 (2000-2006)

연도	온라인 콘텐츠	온라인 교육과정	오프라인 교육 교재
2001	-	· 노인 위한 인터넷 활용	-
2002	· 치매/명생교육 정보 · 노년건강/노인레포츠 정보 · 학습자료/노인복지시설 정보 · 실버용품/간병 정보	-	-
2003	· 문화/생활 정보 · 취업/사회봉사 정보 · 정보화교육 정보	-	-
2004	· 노인과 성(性)/상·장례 정보	-	· 어르신 전용 생생한 디지털
2005	· 노년기 식생활 정보	· 고령층 인터넷 따라잡기 · 고령층 홈페이지 제작관리	-
2006	· 노인 학대 · 의학백과/건강소식지 · 가족	· 어르신을 위한 디지털 라이프 · 어르신을 위한 디지털로 일하기 · Swish MX 웹애니메이션	· 컴퓨터 첫걸음/인터넷 첫걸음 · 한글 첫걸음/생생한 디지털 · 편리한 디지털/재미난 디지털 · 디지털로 일하기/인터넷에 집착기
총계	17종	6종	9종
제공 사이트	· 도음나라 (www.itall.or.kr)	· 배움나라 (www.estudy.or.kr)	· * 오프라인 교재로 제공

※ 주 : 위 교육물은 한국정보문화진흥원(KADO)에서 개발하여 무료로 보급지원하고 있음

강사를 양성하여 파견하기 위한 '정보화교육 강사지원단' 을 조직하여 운영할 뿐만 아니라, 고령층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정보화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온라인 교육시스템 '배움나라(www.estudy.or.kr)' 를 구축하여 평생정보화 교육환경을 조성하였다.

특히, 지난 2005년부터 고령층으로 구성된 '어르신 IT봉사단' 을 조직하여 "고령층에 의한 고령층 정보화 교육" 을 추진해왔다. 고령층에 의한 고령층 정보화 교육은 같은 세대로서 가지는 동질감과 유대감이 상승효과를 발휘하여 교육대상자인 고령층의 정보사회 참여욕구를 보다 더 자극함으로써 정보격차 해소를 촉진하는데 유용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주관하여 지원하는 '어르신 IT봉사단' 은 2005년 27개 팀이 최초로 조직되어 147명의 노인 봉사단원이 정보화 교육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들 고령층 봉사단에 의한 고령층 정보화 교육 대상자 수는 2005년 754명에서 2006년 4,065명으로 크게 증가하여 "고령층에 의한 고령층 정보화 교육" 이 고령층 사이에서 매우 큰 호응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세 번째로 고령층 정보격차해소를 위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령층의 정보사회 참여 의지이다. 한국에서는 고령층의 정보활용 능력을 평가하는 '어르신 인터넷 과거 시험', 정보화 및 고령층 관련 기관 간 협력을 통하여 고령층 정보검색대회, 홈페이지 제작 경진대회를 협력 개최하는 등

고령층의 정보화와 관련되는 각종 대회와 행사를 마련하여 고령층의 정보화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보격차해소를 전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정책적으로 지난 2001년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이후 2002년과 2005년에 걸쳐 지속적인 개정작업을 진행함으로써 급속하게 변하는 정보화 환경에 적합한 대응을 하기 위하여 노력해왔다. 특히, 2003년 정보격차해소 전담기관으로서 한국정보문화진흥원(KADO)을 설립하여 국내외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체계 기반을 갖추었다. 한국의 고령층 정보격차해소는 이러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환경 속에서 만들어지고 다듬어지는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을 통하여 추진된다.

[표 4]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기반

연도	내용
2001	·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 제정 · 제1차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2001-2005) 추진
2002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 개정(1차 개정)
2003	정보격차해소 전담 기관 설립 (기관명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5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 개정(2차 개정)
2006	제2차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2006-2010) 추진

2. 해외 현황

1) 북미 국가들의 고령층 정보격차해소 활동

미국, 캐나다 등의 북미 지역에서는 고령층 정보화를 위한 비영리단체의 활동이 매우 활발한 편이다. 미국의 경우, 50대 이상의 정보화 교육을 주요 임무로 고려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단체 시니어 넷(SeniorNet)에서는 개인 및 기업 후원자들의 재정지원을 토대로 고령층의 정보격차해소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1986년 시작된 시니어 넷은 현재까지 미국 전역에 걸쳐 200여 개가 존재하며, 시니어 넷 본부와 각 지역별로 지부를 두어 유기적인 고령층 지원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시니어 넷 각 지부에서 운영하는 교육센터(Learning Center)에서는 컴퓨터 교실(Computer Class)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저렴한 비용으로 고령층이 정보통신 기술에 친숙할 수 있는 환경을 추구한다. 컴퓨터교실 프로그램은 정보화 기초교육부터 보다 심화된 내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단계의 교육과정을 제공하며, 특히 고령층 자원봉사자가 강사로 투입되어 동년배에 의한 교육활동의 특성

을 가진다.

캐나다의 경우, 정부차원에서 진행되는 산업부의 정보격차해소 프로그램인 CAP(Community Access Program)에서 고령층 정보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를 위한 종합정보접근체계인 시니어캐나다(Senior Canada On-line)를 설치하여 고령층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정부부처, 공공기관 및 주 정부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시니어캐나다에서 제공하는 고령층 정보화교육은 5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컴퓨터 기초교육부터 온라인 banking 등 인터넷을 활용한 실용교육에 이르기까지 실용성을 강조하는 고령층 정보화교육이 이루어진다.

2) 유럽 주요국들의 고령층 정보격차해소 활동

정보통신기술을 위하여 '모두를 위한 정보사회(An information for all)'를 지향하는 유럽사회는 북미지역, 특히 미국과의 정보격차를 좁히기 위하여 유럽연합(EU) 등 역내 국가 간 연합 차원에서 'eEurope' 등의 정보화 종합계획을 구상하고, 이에 기반하여 개별 회원국의 전략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정보격차해소를 추진하고 있다. 유럽 국가 중에서 특히 서유럽, 북유럽 등에 위치한 주요 국가들은 자국 내 인터넷 및 브로드밴드 보급을 통하여 경제 및 사회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들 국가 중 영국, 아일랜드, 스웨덴, 핀란드는 특히 고령층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아래에서는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영국에서는 세대 간 정보격차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고령층의 인터넷 비용 요인 및 인터넷 이용 장려를 위한 조사 연구 등의 연구 활동을 비롯하여 고령층 정보화를 위한 캠페인 및 사업 등이 정책적으로 다양하게 전개된다. 고령층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인터넷 이용실태조사는 웨일즈고령층위원회(AGE cymru), 영국방송통신위원회(Ofcom), 영국통계청(ONS) 등의 기관 등에서 실시된다. 또한 영국 BT Wales에서는 고령층의 인터넷 비용 요인을 조사하여 고령층의 정보사회 참여방안 및 정보화의 혜택을 홍보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BT Wales에 따르면, 영국 고령층의 인터넷 비용 요인으로서 자신감이나 지식 결여, 인터넷연결성 미확보, 인터넷 접속비용 부담, 인터넷에 대한 무관심, 인터넷을 대신 이용하는 자가 주변에 존재, 인터넷으로 인한 혜택

이 없다고 생각, 정보보호에 대한 불안감 등의 7가지를 제시하였다. 영국국립평생교육연구소(NIACE)에서는 지역조직을 통한 e-러닝 기회제공 및 고령층 정보화 성공사례를 보급함으로써 고령층의 ICT 이용을 촉진한다. 남부웨일즈 지역의 경우 디지털스토리텔링 사업을 통하여 고령층이 보다 ICT에 친숙하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성공하였다. 영국 웨일즈 정부는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인터넷 이용행태를 조사하여 인터넷 이용에 따른 다양한 정보 기회 제공 대책을 제안하고 'Meet the Mouse'와 같은 고령층 정보화 캠페인을 추진함으로써 정보격차해소 프로그램의 성과를 입증하는 연구를 실시한다. 또한 매년 'Age Concern England'와 'Digital Unite Limited'에서는 "Silver Surfer Week" 캠페인을 실시함으로써 고령층의 정보사회 참여를 추구한다. 이 캠페인은 BT, MS 및 Intel 등의 후원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1만7천 명 이상의 고령층이 이 캠페인을 통하여 정보기회와 가능성을 경험하였다.

아일랜드의 경우, 정보격차해소 정책은 수상실(Department of the Taoiseach)의 정보사회정책국(The Information Society Policy Unit)을 통하여 추진된다. 지난 2006년 9월 아일랜드 수상실에서 발표한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ASC(Access, Skills, Content) 이니셔티브에서는 고령층과 장애인 정보격차해소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함으로써 고령층 정보화에 관한 국가적 관심을 보여주었다. ASC 이니셔티브는 통합정보사회(Inclusive Information Society) 추진과정에서 존재하는 후기 기술 채택자들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지원 정책으로써 일정 기준에 따라 자원 조직 또는 비영리 단체를 선정하여 이들의 정보화 활동을 지원한다. 주목할 점은 이들 기관의 지원 자격 요건으로서 고령층과 장애인의 정보화 니즈를 충족할 만한 프로젝트 성격을 반영할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니셔티브의 재정지원을 받는 Age and Opportunity(AO)에서는 고령층 정보화교육, 공공 인터넷접근 서비스 제공, 사이버카페 운영 등 고령층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다.

스웨덴에서는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55세 이상 장·노년층을 대상으로 비영리적 네트워크 커뮤니티인 스웨덴 시니어 넷(SeniorNet Sweden)이 운영되고 있다. 스웨덴 시니어 넷

<표 5> Age & Opportunity의 고령층 정보격차해소 활동

구분	주요 내용
고령층 정보화교육	- 고령층 IT 훈련을 통하여 직업기회를 제공 - 지역별 VEC(Vocational Education Committee, 직업교육위원회)에서 실시하며 현재 일부 지역에서 참여
공공 인터넷접근 서비스 제공	- 아일랜드의 모든 공공도서관에서 인터넷 접근성을 제공 - 이 중 일부 도서관에서는 정보화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며, 동년배간 정보화교육 개념(peer training scheme)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에 있음
고령층 정보이용행태 연구	- 많은 고령층의 정보이용 관련 연구결과들이 고령층정보화의 중요성을 뒷받침 - 유럽국가들 중 아일랜드의 고령층 정보화가 낮은 편으로서, 전자정부등 주요 정부서비스가 온라인화 됨에 따라 고령층의 정보화교육이 향후 중요할 것으로 예측
고령층의 자발적 정보화교육 봉사	- 지역자원을 활용한 정보화 숙련 고령층의 자발적 정보화 활동 추진 - Galway City의 두개 은퇴자 그룹에서는 해당지역의 VEC를 활용하여 그룹 내 회원을 또는 지역별 VEC 학교에서 정보화훈련프로그램을 조직 및 운영
주간보호센터 고령층 정보화교육	- 노인주간보호센터(Day Care Center)의 고령층 및 보호사에 대한 정보화교육 프로그램 - 현재 Claire County에서 운영 중이며 고령층과 보호사에 대하여 워드프로세싱, 이메일이용, 웹카메라 사용법 등의 교육 실시 - 특히, 주간센터의 고령층 정보화교육은 고령층이 이메일 등 온라인 활동을 통해 멀리 떨어진 가족이나 친척과의 관계를 유지하거나 온라인 쇼핑이나 주문 등으로 생활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
고령층 사이버카페	- 지역 내 교회에서 일주일 중 일정시간 동안 사이버카페를 운영하여 주민 대상으로 인터넷접근 서비스 제공 - 현재 Dublin City의 St. Ann교회에서 사이버카페 운영
고령층을 위한 웹사이트	- 정보화 초보자를 위한 웹사이트에서부터 온라인접지 제작 등 고급수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의 유용한 웹사이트 정보를 제공

* 주 : <http://www.olderinireland.ie/education/itcomputers.htm> 내용을 표로 재구성

은 정부의 재정지원을 기반으로 1997년부터 운영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목적들을 설정하여 활동하고 있다.

- ICT에 관심을 가지는 스웨덴 고령층의 사이버커뮤니티(SeniomNet Sweden)를 구축하여 웹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활동 추구
- 지역기반의 시니어 넷 클럽들을 조직하여 정보화 훈련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학습센터 역할 수행
- 매년 10월 스웨덴의 400-500여 개 도서관 및 후원자 협력으로 고령층이 참여하는 정보화 활동 또는 프로젝트 추진
- 고령층의 사회적 니즈를 반영한 ICT 도구의 개발 장려

핀란드에서는 다른 유럽국들에 비하여 초고령사회 진입이 급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이에 대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고령층 정보격차해소와 관련하여, 지난 2006년 9월 핀란드의 로바니에미(Rovaniemi)에서 개최된 '모두를 위한 접근성(International Design for All

Conference)에서는 '고령화와 ICT(Ageing and ICT)' 세션을 마련하여 고령층의 ICT 기술 이용 의향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세션에서는 주로 고령층의 온라인 교육에 대한 중요성 및 적극적인 온라인 교육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웹 접근성 설계방안과 노인복지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ICT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핀란드에서는 정보격차가 곧 사회격차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고령층의 정보화는 다음의 측면에서 중요한 사회 자본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보고 있다.

- 고령층의 지식과 경험
- 고령층의 사회적 교섭능력
- 가족 및 비정부기구 활동을 통한 보호능력에 대한 고령층의 탁월성
- 다음 세대에 대한 고령층의 사랑과 관심
- 새로운 상품 소비를 위한 잠재적 시장 확대에 대한 고령층의 기여

위와 같은 측면에서 핀란드 정부는 고령층이 사회 자본으로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주요대상이 되며, 고령층 정보 이용자의 보다 용이한 기술접근을 위하여 인터페이스 지원을 강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신뢰성을 향상시켜 적극적인 정보사회 참여(e-Inclusion)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한다.

3) 동아시아 주요국의 고령층 정보격차해소 활동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일본과 싱가포르 등의 동아시아 주요국에서는 고령층 정보격차해소가 단순히 취약계층의 평등한 정보사회 참여라는 사회적 의미를 초월하여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국가적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주요정책으로 인식한다. 이하에서는 이들 각국의 고령층 정보격차해소 정책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일본 정부의 고령층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노력은 e-Japan, u-Japan 등 국가정보화 전략의 세부과제로 추진된다. e-Japan 전략에서는 고령층의 정보화를 위한 보편적 설계를 강화하여 고령층의 정보접근성을 확대코자 하며, 이 이외에도 고령층의 정보화교육 프로그램을 재정지원해 왔다. 2000년 12월 총무성과 후생노동성 공동으로 발간한 '고령자·장애인의 정보통신이용 촉진을 위한 비영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연구회'에 따르면, 일본 전역에 62개의 시니어 넷과 47개의 퍼스널컴퓨터 볼런티어가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단체에서는 주로 고령자 및 장애인의 IT 이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외에도 민간기업, 고령자 및 장애인 단체, 지방공공단체, 중앙정부 등이 IT 이용 촉진을 위한 주체로 활동하고 있다. 고령층의 IT를 이용한 근로활동 진흥을 위하여 일본 가나가와 시(市)의 이키가이(보람있는 삶) 정보작업센터에서는 고령자 또는 장애인이 누구나 작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텔레워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고령자와 장애인은 주로 관공서, 기업, 관계단체로부터 통신 회선을 통하여 홈페이지 작업, 회의자료의 전자문서화, 점자번역 등의 작업내용을 의뢰받아 업무 처리한 결과를 납품하는 형태로 IT를 매개로 한 근로활동을 수행한다. 이들 계층의 업무환경 편의를 위하여 텔레워크 센터(Telework Center)에서는 출입구에 슬로프 설치,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화장실, 시각장애인이나 고령자를 위한 별도의 정보통신단말기, 점자 프린터 및 대형 키보드를 비치한다. 일본에서는 e-Japan 전략의 일환으로 전개해온 고령층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교육, 텔레워크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지난 2006년 1월 발표한 u-Japan 전략을 통하여 u-IT를 활용한 고령층 복지정책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통신회사, 고령층 가구, 지역 내 의료센터, 사회복지사 등을 기술적으로 연계하여 고령층에게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을 예방하려는 노력이 일례가 될 수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2006년 60세 이상 고령층의 컴퓨터 이용률이 28%, 인터넷 이용률이 21%로 나타났다. 이들 60세 이상 고령층의 인터넷 비이용 요인으로서 해당 연령층의 40%가 '인터넷에 대한 지식 부족', 그리고 뒤이어 '인터넷에 대한 무관심' (35%)으로 조사되었다. 싱가포르 정부에서는 고령층 정보 비이용자들의 인터넷 지식부족에 대한 욕구를 정책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고령층 정보화교육 추진에 관한 내용을 정보화 종합계획에 담고 있다.

지난 2006년 싱가포르 정부에서 발표한 정보통신 발전 종합계획으로서 'iN2015'에서는 IT를 통한 싱가포르의 경제 및 사회발전을 지향하는 내용을 골자하고 하고 있는데, 특히 고령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정보격차해소를 통하여 모든 국민의 정보화 참여를 촉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iN2015에서 제시하는 고령층 정보격차해소 프로그램

내용은 다음과 같다.

- **Infocomm Awareness in Community** : 지역사회 ICT 발전을 위한 'Infocomm Awareness in Community' 프로그램은 사회의 정보화 문해 능력을 촉진하고자 마련된 것으로서, 고령층을 대상으로 문자메시지 전송법, 인스턴트 메시지 사용법과 같은 기초 정보화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세대 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고자 한다. 또한, 최근 싱가포르 정보통신청(IDA)는 고령층 정보화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또 다른 프로그램인 'NEU PC program'을 간접적으로 활용하고자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본래 싱가포르 정부에서 추진하는 저소득층 가정의 취약 청소년(school-going children) 대상 PC 보급 프로그램이다. iN2015에서는 정보통신청-교육부 간 협력을 통하여 이들 청소년이 컴퓨터를 단순히 무료로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지역 센터에서 고령층의 정보화교육 지원활동 봉사를 함으로써 컴퓨터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도 운영될 것을 요구함으로써 이들 청소년을 정보화전도사(e-embassador)로 육성하고자 하는 전략을 담고 있다.

- **iAccess** : iAccess 프로그램은 싱가포르의 국민 정보화촉진을 위한 정보접근 전략프로그램으로 '1인 1PC 이용(One-To-One Computing)', 'Learning@Home(온라인교육)'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Seniors@eCitizen** : 싱가포르는 급속한 고령화 현상의 사회적 극복을 위하여 고령층의 정보소외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 정부에서는 고령층과 고령층 보호자를 위한 온라인포털 'Seniors@eCitizen'을 구축하여 주택문제 상담, 건강복지서비스 등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 **지역센터 및 노인센터의 고령층 정보화교육 프로그램** : 싱가포르의 고령층 정보화교육은 주로 기술이용의 두려움을 완화시킴으로써 고령층의 수요, 이동성 및 능력에 적합한 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둔다. 이러한 점에서 교육의 내용은 휴대전화 사용법, 해외 거주 친척들과도 자유롭게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VoIP 또는 인스턴트 메시지

사용법 등의 실용적 측면들을 담고 있다. 또한 어르신들에게 인터넷을 통한 금융거래, 각종 예약 및 쇼핑활동 등의 편리함과 유용성을 홍보하고 교육하는 과정을 제공함으로써 정보화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은 싱가포르의 각 지역 센터 또는 노인센터(senior citizen corners) 등에서 실시되며 이들 센터에서는 고령층의 학습속도에 맞춰 교육을 진행한다.

IV. 고령층 정보격차해소 정책방안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한국에서 고령층 정보격차 해소는 중요한 사회적 과제이다. 고령층의 정보기회 실현은 장기적 관점에서 한국의 경제, 정치, 사회 발전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는가와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령층 정보격차해소 방안은 정보격차의 유형에 따른 접근을 통하여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제1유형의 정보격차의 경우 정보통신매체에 대한 접근성 개선이 시급하다. 저렴한 정보기기를 제공하여 원하는 정보서비스에 접근가능하게 하고,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에 적합한 보조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정부부처를 포함한 공공 부문에서는 접근성 제고를 위한 선도적 지원자가 되어야 할 것이며, 정보통신망에 대한 고령층의 사용 장벽을 낮춤으로써 네트워크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물론 정보기기에 대한 접근성이 확보되었다고 해서 고령층의 정보이용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접근성 개선이 정보격차 해소의 기본 조건이기는 하지만, 고령층의 정보이용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 복잡한 사안이 존재한다. 현재 국내 대부분의 가정에서 인터넷 이용이 가능하지만, 정작 고령층의 정보이용률이 현저하게 낮은 것은 고령층에 특유한 정보격차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두려움, 문제발생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주변인의 존재, 정보기술의 용도에 대한 인식부족 또는 무관심 등의 요인들로 고령층의 정보화가 방해되고 있다는 사실은 정보 비이용에 관한 여러 조사연구에서 밝혀져 왔다. 따라서 고령층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교육적 지

원을 통하여 정보기기의 자율적 이용을 가능케 하고, 정보화 유용성에 대한 인식제고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정보사회 참여욕구를 자극해야 한다. 정보화 교육은 다양한 사회채널을 통하여 가능할 것이며, 정보화 인식제고 활동에 힘입어 동기화된 고령층의 정보화 욕구는 동시에 안전하고 건전하게 분출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이 정보격차해소의 제2유형과 제3유형에 직결된다. 이미 우리사회에서는 인터넷 중독, 사이버범죄, 비윤리적 정보이용 행태, 불건전 콘텐츠에의 노출 등 위험사회의 모습을 노정시켜 왔으며, 이에 대한 대책수립이 다양하게 강구되어 왔다. 고령층의 정보이용 문화는 이러한 정보화역기능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제고활동과 함께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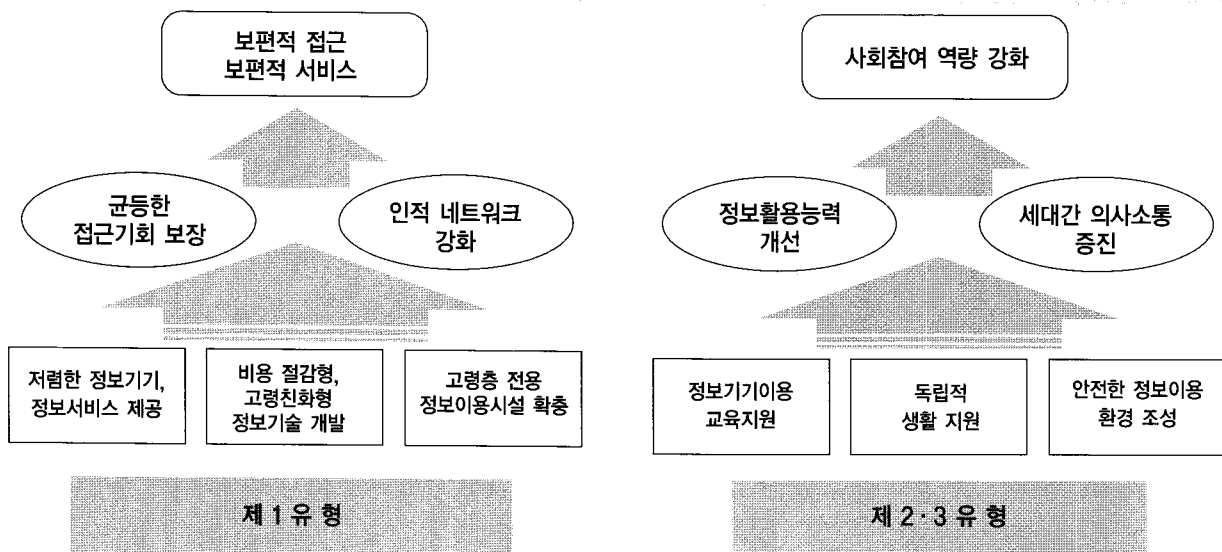
고령층의 정보활용 능력 개선과 함께 정보사회 참여과정에서 증진되는 세대 간 의사소통의 역량은 보다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더불어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여기에는 향후 고령화 사회에서 더욱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IT를 활용한 고령층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 및 건전한 생활을 통해 도모될 수 있는 독립적 생활을 위한 정책지원이 또한 포함된다고 하겠다.

보다 구체적으로 고령층 정보기회 실현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서 정부에서는 범부처간 노력을 통한 고령층 300만

명 정보화 교육 달성, 고령층 정보이용을 위한 인프라 및 콘텐츠 확충, IT를 통한 고령층 소득 창출, 건전한 정보이용 문화 확산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고령층의 정보화 교육을 위하여 65세 이상뿐만 아니라 50대 이상 장·노년층을 대상으로 실용성에 기반한 생활 밀착형 정보화 교육을 지원해왔다. 특히,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정보격차 해소 전략으로서 전국각적으로 마련된 '제2차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에서는 2010년까지 중장년층 300만 명을 정보화 교육 달성인원 목표로 삼고 있다. 현재, 한국의 장·노년층 인터넷 이용률은 전체 한국인구의 22.5%(168만 명)로서 2010년에는 이 비율을 6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 등 범 부처 차원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둘째, 고령층의 정보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 정보이용 시설을 확대 설치하는 등 '정보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고령자가 정보이용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뿐만 아니라 이용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고령층의 정보이용 시설에 대한 이용편의성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고령층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고령층의 취업, 금융, 교육, 건강, 복지, 지역생활 등 실생활에 유용한 고



(그림 5) 유형별 고령층 정보격차의 해소방안

령층 전문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할 필요가 있다.

셋째, 평균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은퇴자들에 대한 경제력 향상정책이 주요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는 현 추세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IT를 소득창출 수단으로 하는 '어르신 IT 창업 교육'이 필요하다. 고령층의 경제력을 확보하는 방안은 고령층이 IT를 제2의 인생을 개척하는 생산적 수단으로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노후생활을 활기차고 적극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내게 하는데 유용하다.

마지막으로, 고령층의 건전하고 올바른 정보생활을 위한 정보문화 확산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정보화의 긍정적인 기능 이면에 존재하는 부정적인 현상으로서 인터넷 중독, 개인정보침해, 사이버폭력 등으로부터 고령층을 보호하고 이러한 정보화역기능을 유발하지 않도록 정보통신윤리, 사이버범죄예방, 정보문화에 대한 이해 등이 고령층의 정보화 역량 강화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고령층의 정보격차 해소는 균형 있는 정보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모두가 함께하는 따뜻한 디지털 세상 구현의 첫걸음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도 정책적 노력을 다할 필요가 있는 주요 과제로서 전 국가적 관심이 지속되어야 한다.

V. 결 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정보화와 인구 고령화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인 인구의 사회적 경험과 위치가 지금과는 질적 및 양적으로 크게 변화될 것이고, 정보화로 인해 고령층의 정보이용에 관련된 기술과 정책의 변화 및 발전 양상이 재편될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은 고령층 인구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 분명한데, 이는 단순히 정보통신기술의 기본숙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고령층의 자발적인 필요성과 주도에 의해 기술의 변화 방향이 결정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향후 빠르게 진행될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로 4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고령자의 정보사회 참여를 효과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 방

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층의 정보기기 및 보편적 서비스 수혜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는 정보격차의 제1유형으로서 정보접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정보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저렴한 정보기기 보급방안 및 고령친화형 기술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고령층을 위한 전용 정보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고령층 누구에게나 정보 접근 환경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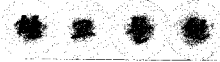
둘째, 고령층을 위한 정보화교육의 확대이다. 이는 정보격차의 제2유형인 정보활용에 연결되는 것으로서, 현재까지도 계속 진행되어 온 취약계층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교육 지원 중 고령층의 비율을 높여 정보사회 참여를 위한 요건을 충족시키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셋째,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고령사회에서 제기될 수 있는 이슈는 건강하고 경제적 여유가 보장되는 노년의 삶에 관한 것이 될 것이다. 정보격차의 해소가 이러한 고령층의 욕구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IT를 활용한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또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강정보 서비스 제공을 비롯하여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IT의 역할을 정책방안으로 고민함으로써 노년기에 정보통신기술을 통하여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들 고령층의 사회 참여를 위한 기반이 정보격차 해소에서 비롯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고령층의 건전하고 올바른 정보생활을 위한 정보문화 확산이다. 이는 제3유형으로서 정보수용에 직결되는 바, 정보통신기술의 보다 생산적인 활용을 위하여 인터넷 중독, 사이버범죄 등으로부터 고령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과 아울러 고령층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함에 있어서 규범적, 윤리적, 그리고 자기조절적인 이용문화를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일종의 정보생활 양식으로서 고령층에 고유한 정보문화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아낌없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이와 같은 대응책을 장기적이고 체계적이며 예방적 대책으로 접근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속적인 사회참여를 통하여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자 하는 열망은 이제 세계적인 추세로 되고 있다. 고령화가 국제사회에서도 유독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있는 우리사회에서 본 논문이 제

시한 고령층 정보격차해소 촉진방안은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사회적 생산성 향상에도 연결되어 선진 정보문화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김문조 · 김종길(2002), 정보격차의 이론적 · 정책적 제고, 한국사회학 제36집 4호.
- 김은정(2007),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세대통합형 지원정책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1권 2호.
- 박형준(1996), 정보사회에서의 사회적 불평등의 메카니즘, 정보사회와 사회윤리,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 보건복지부(2006), 2007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 손연기(2007), 한국의 고령사회에 따른 어르신 정보격차 해소 방안, Active Ageing 국제컨퍼런스 발표자료.
- 양희인(2006), 고령층과 ICT, 2006 정보격차해소동향,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일본총무성 우정산업청(2000), 고령자장애인에 의한 정보통신이용에 대한 인적 지원 및 웹접근성 확보 과제. (http://www.soumu.go.jp/joho_tsusin/pressrelease/japanese/tsusin/000523j501.html)
- 최두진 · 고정현 · 김은정 · 장주병 · 박세은(2006), 정보격차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새로운 방향 모색,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통계청(2006) 2006 장래 인구 추계.
- 한국인터넷진흥원(2006), 2006 하반기 정보화 실태조사.
-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6), 2006 정보격차 지수 및 실태조사.
-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7), 외국의 정보격차해소 및 정책동향. 정보격차해소백서.
- Center for Strategic&International Studies(2007), The Aging of Korea: Demographics and Retirement Policy in the Land of the Morning Calm, CSIS Report(March 2007).
- Claire, L.M., Galand, J. M.(2007), Seniors and ICT's: a Sense of Wisdom, Communications&Strategies, No. 53, 1st quarter.

- Compaine, B. M. (ed.)(2001), The Digital Divide: Facing a Crisis or Creating a Myth · MIT Press.
- Irish Department of Taoiseach, <http://www.taoiseach.gov.ie/index.asp?locID=430&docID=-1>.
- Kling R., Lamb R.(1999), IT and Organizational Change in Digital Economies. Computer and Society. September 1999.
- Kling R.(2000), Learning About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Social Change: The Contribution of Social Informatics.
- IDA Singapore(2006), iN2015 Main Report. <http://www.ida.gov.sg/About%20us/20070903145526.aspx>.
- Ipsos Reid(2007), Older Canadians and The Internet, Ipsos Reid, http://www.ipsos.ca/pdf/interactive/Ipsos_Older_Canadians_Internet.pdf.
- Shiller, H.(1996), Information Inequality: The Deepening Social Crisis in America. New York:Routledge.
- Sornes J.O, Stephens K.K, Brownig L. D, Setre A. S.(2005), A Reflexive Model of ICT Practices in Organizations, Information ScienceJournal Vol. 8.
- World Bank(2001), World Bank calls for a Narrowing of the 'Knowledge Gap' between Rich and Poor, World Bank Group News Release No. 99.
- http://www.seniornet.org/jsnet/index.php?option=com_content&task=view&id=74&Itemid=45.

약 력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졸업(학사)
 미국 유타주립대 사회학과 졸업(학사)
 미국 텍사스A&M대(사회학석사, 박사)
 1999년 한국정보문화센터 정보문화기획본부 본부장
 1999년 ~ 2002년 송실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보사회학과 교수, 학과장
 2001년 ~ 2007년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위원
 2002년 한국정보문화센터 소장
 2003년 ~ 2006년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제1대 원장

손 연 기

2003년 ~ 현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위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제2대 원장, 행정자치부 정책자문위원